

최치원의 入唐 修學과 활동

장 일 규*

I. 머리말	IV. 縣尉 재직과 博學宏詞 응시
II. 家系와 入唐留學	V. 高駢 휘하 巡官 활동
III. 國子監 수학과 賓貢進士 급제	VI. 맺는 말

I. 머리말

최치원은 신라 사회가 크게 동요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열망했던 시대를 살았다. 그는 당나라에 들어가 文名을 얻고 귀국하여 신라 사회의 변화와 재건을 모색했다. 그러나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좌절감을 안고서 해인사에 은거하여 삶을 마쳤다. 후세 사람들은 그의 문장과 충절을 기려서 지금까지 존송해 왔다.

최치원 생애에 대한 연구는 偉人의 인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시도되었다. 특히 사상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함께 진행되면서 『三國史記』 崔致遠傳에 실린 생애에 관한 내용을 더욱 보완했다.¹⁾ 하지만 저술에 생애를 복원해 줄 내용이 적지 않아서, 그것을 통해 생애를 재구성하려는 노력도 전개되었다.²⁾

* 국민대학교 강사 한국고대사

1) 최치원 생애에 대한 연구성과의 검토는 張日圭, 「崔致遠 연구의 성과와 전망」, 『北岳史論』 9(北岳史學會, 2002), 80~84쪽 참조

2) 金福順, 「崔致遠의 佛敎關係著述의 檢討」, 『韓國史研究』, 43(1983); 『新羅華嚴宗研究』(民族社, 1990).

그동안 최치원의 생애에 대해서는 신분과 귀국 후 생활, 은둔 동기 등이 집중적으로 살펴졌다. 그것은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최치원의 행적을 부각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다.³⁾ 신라의 숙위학생은 10년의 학습기간을 초과하면 귀국했는데 최치원은 특별히 17년 동안 당에 머물렀다. 오랜 기간 동안의 滯唐은 아마도 귀국 후 활동을 염두에 둔 현실적 고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최치원의 귀국 후 행적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당시절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치원의 재당시절 활동 시기와 내용은 당의 정치사회상과 고변의 정치 행적을 감안하여 최근에 보다 명확해졌다.⁴⁾ 다만 科試 응시 이전의 수학 과정 및 급제의 의미, 縣尉 및 博學宏詞의 성격, 고변 휘하의 투탁 과정 및 시기, 그 활동상 등에 대한 고찰은 다소 미흡하며 재당 활동의 성격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 글은 재당 활동의 주요 행적을 살피고 그 현실적 이유와 성격을 이해하려고 작성되었다.

우선 최치원의 가계를 정리하여 입당유학의 동기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당의 選舉制와 관계를 통해서 최치원의 빈공급제 여부를 확인하고 그 성격을 음미하며, 현위직의 위상과 박학평사 응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변의 활동상과 관련하여 회남 막하에 투탁한 과정과 이유를 고려하면서 재당 활동의 특징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최치원이 당 뿐만 아니라 신라 고위 관직으로의 진출을 희구했음을 제시하고, 그것이 경문왕계 왕실의 왕권 강화 작업과 관련됨을 유념하고자 한다.

-
- 3) 李基白, 「新羅 骨品體制下的 儒教的 政治理念」, 『大東文化研究』, 6·7합(1970); 『新羅思想史研究』(一潮閣, 1986); 「新羅 六頭品 研究」, 『省谷論叢』, 2(1971); 『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 4) 金重烈, 『崔致遠 文學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1984); 許捲洙, 「崔致遠의 在唐生涯에 대한 小考」, 『中國語文學』, 10(嶺南中國語文學會, 1985); 李在云, 「崔致遠의 生涯 研究」, 『全州史學』, 3(1995); 『崔致遠研究』(백산자료원, 1999); 張日圭, 「『桂苑筆耕集』의 構成과 性格—崔致遠의 在唐生涯와 관련하여—」, 『韓國史學史研究』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 I(나남출판, 1997); 崔英成, 「崔致遠 思想 形成의 歷程에 대한 考察」, 『東洋古典研究』, 10(1998); 『崔致遠의 哲學思想』(아세아문화사, 2001); 張日圭, 「崔致遠 撰〈浮石尊者傳〉의 復元 試論」, 『北岳史論』, 6(1999).

II. 家系와 入唐留學

최치원은 현안왕 원년(857)에 태어났다 그의 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전한다.

- (1)-① 王京 沙梁部 사람인데 史傳이 모두 없어서 世系를 알 수 없다…최후에는 가족을 데리고 伽耶山 海印寺로 들어가서 母兄인 浮圖 賢俊과 定玄師와 함께 맺어 道友를 삼고 한가로이 지내다가 늙어 삶을 마쳤다.
- (1)-② 先代에 절을 지을 때 큰 誓願을 발원했는데 金純行과 너의 아버지 肩逸이 그 일에 종사했다.⁵⁾
- (1)-③ 從弟이자 朝請大夫 前守執事侍郎로 紫金魚袋를 하사받은 臣 崔仁澆⁶⁾
- (1)-④ 아무의 堂弟 栖遠은 막 집안의 편지를 좇아왔다가 동쪽으로 돌아감을 맞았다. 마침내 新羅國 入淮海使錄事의 職名를 임시로 맡아서 雄藩에 이르렀다가 장차 고국으로 돌아가려 한다.⁷⁾

김부식은 최치원이 왕경 사랑부 사람이라 하면서 모형 현준을 거론한 이외에 ‘사전이 없어서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저술을 통해서 崔肩逸이 그의 아버지이고 형은 賢俊이며 崔仁澆과 崔栖遠과 일가 형제였음을 알 수 있다.⁸⁾

5) 崔致遠, 「大嵩福寺碑銘 並序」, 『崔文昌侯全集』(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161 쪽에 “先朝締構之初 發大誓願 金純行與若父肩逸”이라고 했다

6) 崔致遠, 「聖住寺 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上, 83 쪽에 “從弟 朝請大夫 前守執事侍郎 賜紫金魚袋 臣崔仁澆”이라고 했다

7) 崔致遠, 「謝賜弟栖遠錢狀」, 『桂苑筆耕集』 권20, 『崔文昌侯全集』, 401 쪽에 “某啓 某堂弟栖遠 比將家信 迎接東歸 遂假新羅國入淮海使錄事職名 獲詣雄藩 將歸故國”이라고 했다

8) 출생지에 대한 검토는 張日圭, 앞의 논문(2002), 81 쪽 참조 가계에 대해서 현준이 母兄이 아닌 外叔이라고 하거나(金仁宗, 「孤雲의 生涯」 『孤雲 崔致遠』, 민음사 1989, 16 쪽), 定玄師를 母兄으로 이해하거나(金福順, 앞의 논문, 1992, 2 쪽; 李在云, 앞의 논문, 1999, 23 쪽), 최인연을 최치원의 從弟가 아니라고 했다(李佑成, 「南北國時代와 崔致遠」, 『創作과 批評』, 38, 1975;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2, 158 쪽). 母兄은 ‘外叔’ 이라기보다 ‘同母의 兄, 同腹兄을 말하므로 현준은 최치원의 親兄임이 분명하다. 정현사는 앞의 ‘母兄浮屠賢俊 과 연결시켜 해석하기보다 뒤의 ‘結爲道友’와 관련지어 ‘해인사에 주석했던 동북형 승려 현준과 그와 함께 머물렀던 定玄師, 이 두 사람과 道友로서 結緣했다’고 이해함이 무리없어 보인다. 최인연은 귀국한 이후에 낭혜비명의 글씨를 썼는데, 비문의 작성을 마친 한참 뒤에 따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비문의 주인공과의 관계를 제시함

최견일은 경문왕 5년(865)에 鶴寺 중창 佛事に 참여했고, 현준은 신라 말에 화엄종의 宗刹格인 해인사에 주석했다. 최인연은 입당유학한 뒤 집사시랑을 맡았고, 최서원은 遣唐使의 수행원으로 활동했다. 최치원의 집안은 사찰이나 불사에 긴밀히 관계하거나 중앙관직의 관료로서 활동했다.

곡사의 중창은 경문왕이 즉위 후 왕실의 권위를 부각하려고 벌인 불사였다. 해인사에는 현강왕 이후 진성왕 때까지 경문왕계 왕실이 주관한 결사와 추복 불사가 자주 선행되었다. 최견일과 현준은 불사를 통해서 경문왕이나 경문왕계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⁹⁾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慶州崔氏 육두품 집안은 신라 하대 이후 대개 유학지식인으로 활동했는데, 특히 경문왕계 왕실과 친밀히 관계하면서 성장했다.¹⁰⁾ 경문왕과 현강왕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관제의 개혁과 함께 측근 세력의 등용을 통해서 국왕의 권력집중을 도모했다. 유학의 진흥을 위해서 국학에 관심을 갖는 한편 대당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많은 숙위학생을 보내어 유학을 翫業하게 했다. 최치원과 최인연 역시 입당하여 유학을 익혔으며 최서원은 입당사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유학을 익히고 불법에 존승하는 경향을 가졌던¹¹⁾ 최치원 가계 구성원의 성장과 활동은 경문왕계 왕실의 왕권 강화과정과 관련되었다.¹²⁾

경문왕 8년(868) 최치원의 입당유학은 왕실과 친밀했던 집안 분위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아래의 사료를 참고하기로 하자

(2)-① 12세에 마침내 海舶을 따라 입당하여 학문을 익히려고 할 때 아버지는
“10년에 급제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힘쓰도록 하라”고 말했다

보다는 최치원의 종제임을 부각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堂弟’는 ‘從兄弟’ 내지 ‘再從兄弟’를 말하므로 최인연과 최서원은 최치원과 4촌 내지 6촌의 형제 사이였다.

9) 張日圭, 「崔致遠 撰〈浮石尊者傳〉의 復元 試論」, 앞의 책(1999), 64~70 쪽

10) 張日圭, 「新羅末 慶州崔氏 儒學者와 그 活動」, 『史學研究』, 45(1992), 10~17쪽.

11) 金福順, 앞의 논문(1992); 『한국고대불교사연구』(民族社, 2002), 361~362쪽.

12) 『三國遺事』 권3, 有德寺조에 “新羅大大角干崔有德 捨私第爲寺 以有德名之 遠孫三韓功臣崔彥撫 掛安眞影 仍有碑云”이라고 했다. 최인연의 遠祖로 有德寺를 창건한 崔有德은 최견일의 先代일 것이다. 신라에는 김유신만이 유일한 大大角干이었으므로 崔有德을 대대각간으로 지칭함은 후대의 윤색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최씨 세력이 진골과 相等할 정도로 신장했음을 말한다. 李基白 「新羅六頭品 研究」, 앞의 책 47 쪽.

치원이 당에 도착하여 스승을 따라 배우고 익히며 태만함이 없었다(『三國史記』 권46, 崔致遠傳).

(2)-② 신라국은 숙위학생과 수령을 보내 入朝하면서 국자감에 부속되어 습업하기를 요청한다. …배움은 四術로써 하고 기한은 10년으로 했다. …앞의 학생을 보냄에 수령으로 시중들고 賀正使 守倉部侍郎 金穎의 배편을 따르도록 명령했다. 대궐에 나아가 학업을 익히게 하고 겸하여 宿衛로 채운다¹³⁾

최견일은 ‘10년 안’에 급제할 것을 최치원에게 독려했다. 숙위학생은 사신을 따라 입당하여 국자감에서 습업했는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했다. 최치원은 10년 안에 학업을 마쳐야 했던 숙위학생이었을 것이다.

숙위학생은 대개 사신의 배편에 동행했는데 최치원은 특별히 商船을 타고 입당했다고 한다.¹⁴⁾ 견당사는 비공식적이지만 唐朝의 허락을 받을 경우 왕실이나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唐物을 구입하기도 했으므로¹⁵⁾ 상선을 탔다고 해서 사비유학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도당유학은 신라 왕실에 의해서 요청된 숙위학생 파견과 국자감 수학에서 비롯되었고,¹⁶⁾ 최치원은 왕명으로 숙위학생의 入朝狀을 작성했으며, 최견일은 적극적으로 숙위학생을 파견한 왕실과 관계했다. 따라서 사비유학생임을 설명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海舶을 타고 입당한 최치원은 官費로 유학한 숙위학생이었다. 때문에 최치원은 학업을 익히는데 태만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경문왕은 近侍機構와 文翰機構를 확장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 문한관은 주로 王言의 制撰, 外交使行 참여나 사신 接賓 教授官 등으로 활동하면서 書表 등 외교 문서의 작성을 전담했다.¹⁷⁾ 당에 유학한 숙위학생, 특히 빈공 급제자는 귀국 후 대부분 문한직을 담당했다.¹⁸⁾ 최치원의 집안 구성원은 숙위학생이나 입당사신으로

13) 崔致遠,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崔文昌侯全集』, 56~59 쪽에 “新羅國當國 差遣宿衛學生首領入朝謝附國子監習業…學其四術 限以十冬…差前件學生等 以首領充僕 令隨賀正使守倉部侍郎級餐金穎船次 赴闕習業 兼充宿衛”라고 했다

14) 『擇里志』 전라도 영암군조에 “崔致遠金可紀崔承祐附商船入唐”이라 했고, 徐有渠 「校印桂苑筆耕集序」, 『桂苑筆耕集』, 위의 책, 286 쪽에 “幼穎慧節倫 年十二 從商舶入中原”이라고 했다

15)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一潮閣 1997), 277 쪽

16) 申滢植, 「羅末麗初의 宿衛學生」, 『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84), 431~435 쪽

17) 李文基, 「新羅의 文翰機構와 文翰官」, 『歷史教育論集』, 21(1996), 45~49 쪽.

활동함으로써 문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당 문화에 익숙했고 또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당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당의 권위와 학문의 힘으로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났다.¹⁹⁾ 자연 최견일은 왕권 강화에 참여할 관직 진출을 의도하여 최치원에게 수학하고 급제할 것을 독려한 셈이다.²⁰⁾ 최치원은 입당 전에 이미 당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관직 진출을 지향했다.

III. 國子監 수학과 賓貢進士 급제

최치원은 東都의 국자감에서 수학했다. 국자감은 처음에 長安에만 설치되었지만 고종 용삭 2년(662)에 洛陽에도 두었고, 대종 광덕 2년(764)에는 兩都의 국자감에서 모두 시험을 치루었다.²¹⁾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3)-① 때에 우산을 쓰고 책을 짊어진 이들이 나누어 兩京에 있으면서 그리울수록 왕래를 끊지 않았고 많을수록 더욱 힘썼다. 지금 國子監 안에는 오직 신라의 馬道만이 있을 뿐, 四門館의 北廊 중에 꿈틀거리는 여러 藩邦은 고요히 중간에 끊어졌다.²²⁾

(3)-② 때에 情性を 풍자하여 읊고 篇이라 이름함을 사물에 빗대었다. 賦나 詩로 일컬었던 것은 얼마되지 않아서 상자에 가득했다. …이내 東都에서 유랑하며 붓으로 밥주머니를 삼았을 때 마침내 賦 5首, 詩 100수, 雜詩賦 30수를 3篇으로 이루었다.²³⁾

18)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257~262 쪽

19) 李基白, 「新羅 骨品體制下的 儒敎의 政治理念」, 앞의 책 233 쪽

20) 최견일은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당 과거 급제와 영달에 최고의 가치를 둔 文士 출신이었다(李在云, 앞의 책, 1999, 22~23 쪽).

21) 『新唐書』 권44, 志34, 選舉志上

22) 崔致遠,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東文選』 권47 에 “是時登笈之子 分在兩京 憧憧往來 多多益辦 至今國子監內 獨有新羅馬道 在四門館北廊中 蠢彼諸蕃 闕其中絕”이라고 했다

23) 崔致遠, 「桂苑筆耕序」, 『桂苑筆耕集』, 앞의 책 287 쪽에 “此時諷詠情性 寓物名篇 曰賦曰詩 幾溢箱篋…尋以浪跡東都 筆作飯囊 遂有賦五首 詩一百首 雜詩賦三十首 共成三篇”이라고 했다

당시 국자감 안에는 다른 藩國의 학생은 모두 끊어지고 신라의 마도만이 있을 정도로, 신라의 숙위학생이 번방인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했다. 책을 짊어지고 온 신라 자체는 장안과 낙양의 국자감에 分置되어 수학했다. 최치원은 동도에서 유랑하며 代作으로 생활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知人の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兩京의 국자감 가운데 동도의 국자감에서 수학했다.

국자감은 尙書省 아래 禮部에 소속되었으며 國子學, 太學, 四門學, 律學, 書學, 算學 등의 學制로 구성되었다. 각 학제는 매년 말에 수학한 내용을 大義十條로 口問했는데 반 이상의 성적을 얻었을 경우 상위의 학교로 옮길 수 있었다.²⁴⁾ 신라의 숙위학생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전문학제보다 국자학, 태학, 시문학에 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4) 왕자 金昕을 보내어 入唐朝貢했는데 이르러서 아뢰기를 “앞서 있는 大學生 崔利貞·金叔貞·朴季業 등은 번방으로 돌려보내라. 새로 입조한 金允夫·金立之·朴亮之 등 12인은 숙위로 머물게 하고, 이에 국자감에 배치하여 습업하도록 하며 鴻臚寺가 資糧을 공급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三國史記』 권 10, 헌덕왕 17년 하5월조).

헌덕왕이 귀국을 요청한 대학생 최리정·김숙정·박계업 등은 국자감에 예속된 태학의 학생이었을 것이다. 최치원 역시 숙위학생이었으므로 입당수학 과정은 이들과 다르지 않아, 국자감의 태학에 머물며 수학했을 듯하다.²⁵⁾ 그는 수학 6년 만에 마침내 급제했다.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5)-① 乾符 元年 갑오년에 禮部侍郎 裴瓚 아래에서 한 번에 급제했다(『三國史記』, 권46, 崔致遠傳).

(5)-② 돌아가신 아버지가 훈계하면서 “10년 동안 進士에 급제하지 않으면 내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 또한 아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가서 부지런히

24) 『新唐書』 권44, 志34, 選舉志上. 四門學生은 太學에 이르고 太學生은 國子學에 오른다.

25) 국자감에는 律學을 제외한 5개 學館에 14세-19세의 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최치원은 다소 이른 나이인 12세에 입당했지만 숙위학생이었으므로 여느 학생처럼 국자감의 태학에 소속되어 습업했을 것이다.

해라. 무너짐 없이 힘써라”고 말했다.…오로지 뜻을 기름에 화합하여 실제로 다른 사람이 백을 하면 나는 천을 노력했다. 나라를 둘러본 지 6년만에 榜의 끝에 金名을 붙일 수 있었다.²⁶⁾

최치원은 경문왕 14년(874) 7월 이전에 예부시랑 배찬의 아래에서 급제했다²⁷⁾ 그는 아마도 당의 選舉 가운데 生徒試의 進士試에 登科했던 듯하다. 그것은 최견일이 ‘진사’ 급제를 희망했고, 개원 24년(736)부터 예부에서 진사의 선거를 관장했기 때문이다.²⁸⁾

당의 인재 등용은 常選과 制舉로 이루어졌는데, 상선의 경우 예부에서 관장했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6)-① 唐나라 제도에서 인재를 취하는 조목은 많은 것이 隋의 옛 제도에 연유한다. 大要는 세 가지인데, 學館을 경유한 이를 生徒라 하고 주현을 거친 이를 鄉貢이라 한다. 모두 有司에 올려서 그것을 쓰거나 물리친다. 그 科目으로는 秀才, 明經, 俊士, 進士, 明法, 明字, 明算, 一史, 三史, 開元禮, 道學, 童子 등이 있다.…이것은 해마다 선출하는 常選이다. 천자가 스스로 조서를 내린 경우는 制舉라고 하는데 비상한 인재를 갖추기 위함이다.²⁹⁾

(6)-② 同年 顧雲과 함께 친하게 지내기를 잘했는데 장차 떠날 때 고운이 시를 지어 송별했다(『三國史記』, 권46, 崔致遠傳).

당 조정은 생도와 향공을 통한 상선과 황제의 제거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했다.

26) 崔致遠, 「桂苑筆耕序」, 『桂苑筆耕集』, 앞의 책 287 쪽에 “亡父誠之曰 十年不第進士 則勿謂吾兒 吾亦不謂有兒 往矣勤哉…冀諧養志 實得人百之已千之 觀光六年 金名榜尾”라고 했다

27) 『三國史記』 권11, 경문왕 14년 7월 초에는 “崔致遠在唐登科”라고 했다. 다만 『舊唐書』 권19 下, 희종 건부 원년 7월 초에 “以禮部侍郎裴瓚爲檢校左散騎常侍 潭州刺史 御史大夫 湖南觀察使”라고 했듯이, 배찬은 874년 7월에 湖南觀察使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최치원의 登科는 배찬이 禮部侍郎에 있었던 874년 7월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嚴耕望은 874년 春에 급제했다고 주장했다(『新羅留唐學生與僧徒』, 『唐史研究論稿』, 新亞研究所, 1969, 435 쪽).

28) 『新唐書』 권44, 志34, 選舉志上

29) 위의 책 選舉志上에 “唐制 取士之科 多因隋舊 然其大要有三 由學館者曰生徒 由州縣者曰鄉貢 皆升于有司而進退之 其科之日 有秀才 有明經 有俊士 有進士 有明法 有明字 有明算 有一史 有三史 有開元禮 有道學 有童子…此歲舉之常選也 其天子自詔者曰制舉 所以待非常之才焉”이라고 했다

學館을 경유한 생도와 주현의 추천을 받은 향공은 매년 예부에서 주관한 시험을 치루었는데 예부시랑이 主考官을 맡았다.³⁰⁾ 시험의 과목은 여러 종류였지만 진사는 여러 과목 가운데 가장 귀한 최고의 시험이었다.³¹⁾ 최치원은 예부시랑 배찬 아래에서 급제했으므로 생도시 가운데 당시 성행했던 진사시를 치루었음이 분명하다.

최치원이 귀국할 때 동년배인 고운은 송별시를 보냈다. 그는 江南西道 池州 출신의 唐人으로 874년에 진사급제했다.³²⁾ 최치원과 같은 해에 급제한 동기였던 셈이다.³³⁾ 고운은 당인이었으므로 빈공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최치원은 고운과 급제 동기였으므로, 당 선거의 상선인 진사시에 응시하여 진사 급제했던 것이다. 다만 급제의 위상은 당인의 그것과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사료를 참고하기로 하자.

(7) 생각하건대 저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가 되었다 근래에 이르러 계속하여 高科를 욕되게 했다... 靖恭 崔侍郎은 賓貢으로서 두 사람을 내치어 渤海의 烏昭度를 수석으로 삼았다.³⁴⁾

발해는 신라와 함께 당에 숙위학생을 파견하여 유학을 습업하게 했는데, 이들 역시 과시에 응시했다. 특히 의종 함통 13년(872)에는 오소도가 中書舍人 崔瑾의 아래에서 신라인 이동을 누르고 수석으로 급제했다.³⁵⁾ 최치원은 고상에게 보내는 신라왕의 장문을 작성하면서 두 사람의 급제가 빈공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동은 최치원과 같은 숙위학생이었으므로, 그가 응시하여 급제한 科試 역시 진사과였을 것이다. 최치원은 그것을 賓貢으로 특별히 구분하여 표현했다. 그것은

30) 金奎皓, 「唐代文學制度的 研究」, 『論文集』, 13집 1호(공주교대 1976), 3쪽

31) 『新唐書』 권44, 志34, 選舉志上에 “大抵衆科之日 進士尤爲貴 其得人亦最爲盛焉”이라고 했다.

32) 『全唐文』 권815에 “顧雲 雲字垂象 池州人 咸通十五年進士授校書郎 高駢鎮淮南 辟爲從事 畢師鐸之亂退官雪川 大順中分修德宣懿三朝實錄書成 加虞部員外郎 乾寧初卒”이라고 했다

33) 崔英成, 「崔致遠 思想 形成의 歷程에 대한 考察」, 앞의 책(2001), 284쪽

34) 崔致遠,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崔文昌侯全集』, 63~64쪽에 “惟彼句麗 今爲渤海 爰從近歲 繼忝高科…靖恭崔侍郎 放賓貢兩人 以渤海烏昭度爲首”라고 했다

35) 宋基豪, 「唐 賓貢科에 及第한 渤海人」,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1994): 『渤海政治史研究』(一潮閣, 1995), 166~168쪽

비록 兩人이 진사과에 급제했지만 唐人과 다른 異邦人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치원 역시 빈공진사로 급제했고,³⁶⁾ 빈국인이었기 때문에 진사급제자의 榜 말미에 명단이 붙여졌다.

당 정부는 외국학생들이 당나라 과거 급제자를 부러워하여 시험을 치기 원하지만 중국인들과 학업에 차이를 보였기에 특별한 시험제도로 빈공과를 설치했다고 한다.³⁷⁾ 그러나 실제 당의 선거에서 빈공과의 과목은 없다.³⁸⁾ 빈공과는 빈공으로 科試에 응시했던 경우를 마치 선거의 한 과목으로 잘못 이해하여 표현했던 오류인 셈이다.

明經試는 유교주의에 입각하여 탄탄하고 넓은 교양을 갖추었는지를 經義를 중심으로 시험했던 데 반해 進士試는 詩賦論策을 주로 시험했다.³⁹⁾ 최치원은 진사시에 응시했으므로 시부와 책문을 연마하는데 노력했다.

국자감 학생은 書學과 算學을 제외하고 經史를 수업했다. 小經으로 『易經』·『尙書』·『春秋公羊傳』·『穀梁傳』을 배웠고, 中經으로 『詩經』·『周禮』·『儀禮』를 학습했으며, 大經으로 『禮記』·『春秋左氏傳』을 익혔다 『論語』와 『孝經』은 모두 兼通해야 했으며, 틈틈이 時務策을 익히고 『國語』·『說文』·『字林』·『三蒼』·『爾雅』 등도 보았다.⁴⁰⁾

신라는 국학에서 『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曲

36) 『新唐書』 권50, 志50, 藝文4 에 “崔致遠 四六一卷 又桂苑筆耕二十卷 高麗人 賓貢及第 高駢淮南從事”라고 하여 빈공급제임을 밝혔는데, 그것은 『太平廣記』 권53, 金可記조에 “金可記 新羅人也 賓貢進士”라고 한데서 보듯이 신라 유학생 김가기를 賓貢進士로 일컫었던 의미와 같다. 다만 최치원은 「與禮部表尙書瓚狀」, 『崔文昌侯全集』, 66~67쪽에 “然至故靖恭崔侍郎主貢之年 賓薦及第者兩人 以渤海烏昭度爲上”이라고 하여, ‘빈공’을 ‘빈진급제’라고도 표현했다. 이것은 천거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아마도 ‘빈공’이 입당수학한 이방인에 대한 施惠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특별히 천거의 의미를 담아 표현한 듯 싶다.

37) 崔瀛, 「送奉使李中父還 朝序」, 『拙菴千百』 권2,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3]民族文化推進會, 1990), 24쪽에 “然所謂賓貢科者 每自別試 附各榜尾”라고 했다. 嚴耕望, 앞의 논문, 432쪽. 賓貢科의 科目은 최해가 처음으로 상정했다. 최치원은 물론 최해 이전에는 ‘빈공과’라는 표현이 없었다. 중국 史書 역시 마찬가지다.

38) 최근에 唐代에는 賓貢科가 없었고 異域의 貢士로 진사급제한 자를 賓貢進士라 불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党銀平, 「唐代有无“賓貢科”新論」, 『中韓崔致遠學術研討會 論文摘要』, 中國 揚州 2001. 10. 16~18).

39) 金奎皓, 「唐代文學制度的 研究」, 앞의 책 5~8 쪽

40) 『新唐書』 권44, 志34, 選舉志上.

禮』·『論語』·『孝經』 등을 가르쳤다. 원성왕 4년(788)에는 讀書三品科가 설치되어 『춘추좌씨전』·『예기』·『문선』·『논어』·『효경』에 능통한 자를 上品, 『곡례』·『논어』·『효경』을 읽은 자를 中品, 『곡례』·『효경』을 읽은 자를 下品으로 가려 선발했다.⁴¹⁾ 국학과 독서삼품과는 『논어』와 『효경』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고 거기에 五經과 『문선』을 더했다. 이것은 당의 국학에서 『논어』와 『효경』을 필수서목으로 하면서 九經을 배우게 했음과 통하는 점이 있다. 최치원은 입당 전은 물론 국자감에서 수학하면서 경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졌다. 한편으로 입당 후에는 ‘人百之己千之’의 노력을 경주하여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시부책문 습업에 열중했고 급제 후에도 중단없이 시부 연마에 힘을 기울였다.⁴²⁾ 경사에 조예가 깊었던 최치원은 진사급제를 위해서 시부책문 습업에 진력했던 셈이다. 그것은 왕실과 관계하여 왕권 강화 작업에 참여했던 아버지 최견일의 바람이기도 했다.

IV. 縣尉 재직과 博學宏詞 응시

빈공진사 급제 후에 최치원은 한 동안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대신 東都를 유랑하며 붓으로 飯囊을 삼아서 賦 5首, 詩 100수, 雜詩賦 30수로 3篇을 이룰 정도로 시부 습업에 매진했다. 2년 뒤 그는 비로소 지방관으로 나아갔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8) 이후 宣州 溧水縣尉를 맞아 받았는데 녹봉이 두텁고 관직이 한가하여 종일 포식할 정도였다. 벼슬의 너넉함은 힘써 배우게 하여 존음도 놓아 버리지 않았다.公私 중에 지은 것을 모으니 5 권이었는데 산을 이루는 뜻을 더욱 힘쓰기 위해서 覆篲의 이름을 적고 땅이 中山으로 불리므로 그 위에 덧붙였다.⁴³⁾

41) 『三國史記』 권10, 원성왕 4년 春조; 같은 책 권38, 雜志7, 職官志上.

42) 崔致遠, 『桂苑筆耕序』, 『桂苑筆耕集』 앞의 책 287 쪽에 “觀光六年 金名榜尾 此時諷詠情性 寓物名篇 曰賦曰詩 幾溢箱篋 但以童子篆刻 壯夫所慙 及示得魚 皆爲棄物”이라고 했다.

43) 崔致遠, 위의 글 287 쪽에 “爾後調授宣州溧水縣尉 祿厚官閒 飽食終日 仕優則學 免擲寸陰 公私所爲 有集五卷 益勵爲山之志 爰標覆篲之名 地號中山 遂冠其首”라고 했다.

건부 3년(876)에 최치원은 전주 율수현위에 임명되어⁴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 속에서 배움에 힘써 『中山覆篋集』 5권을 이루었다.⁴⁵⁾ 그는 지방관을 맡아서도 여전히 시부 습업에 열중했다.

唐代的 진사급제자는 대개 중9품의 지방관을 맡았다.⁴⁶⁾ 최치원 역시 진사급제자였기에 지방관인 현위직에 임명되었다. 신라의 숙위학생 중에는 당의 관직을 받은 자가 있었다.⁴⁷⁾ 金雲卿은 兗州郡都督府司馬와 淄州長史를 지냈고 金裝은 海州縣刺史를 역임했다. 그런데 김운경이 중4품하의 도독부 司馬와 중5품상의 上州 장사를 지냈던 데 반해⁴⁸⁾ 최치원은 당시 지방관 가운데 最下末端職이었던 중9품하의 현위로 재임했다.⁴⁹⁾

김운경은 문성왕 3년(841) 당 무종의 책봉사로 귀국하여⁵⁰⁾ 최치원과 35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위계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치원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김장과 최치원이 맡았던 관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해주현 자사는 海州縣令, 혹은 海州刺史로 이해되는데,⁵¹⁾ 下縣의 현령이라도 중7품하이이고 下州의 자

- 44) 崔致遠, 「初投獻太尉啓」, 『桂苑筆耕集』 권17, 위의 책 379쪽에도 “某新羅人也 身也賤 性也愚 才不雄 學不瞻 雖形骸則鄙 年齒未衰 自十二則別鷄林 至二十得遷鶯谷 方接青襟之侶 旋從黃綬之官 既忝登龍 敢言紉驥”라고 하여, 20세에 지방관으로 나아갔음을 밝혔다.
- 45) 崔致遠, 「長啓」, 『桂苑筆耕集』 권18, 위의 책 386쪽에 “某自江外一上縣尉 便授內殿憲秩 又兼章紱”이라고 하여, 아마도 이 때 ‘承務郎侍御史內供奉 賜緋魚袋’를 하사받은 듯하다. 이것은 빈공급제한 藩國人에게 賜與하는 일종의 관례였다.
- 46) 築山治三郎, 『唐代政治制度の研究』(創元社, 1967), 488~489쪽. 『新唐書』 권45, 志35, 選舉志下에 “進士明法甲第從九品上 乙第從九品下”라고 했다.
- 47) 申滢植, 「羅末麗初 渡唐留學生研究」,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韓國史研究會編 三知院 1987), 304쪽 표 1.
- 48) 兗州는 上都督府인데 도독은 중2품이며, 장사는 중3품, 사마는 중4품하였다. 淄州은 上州인데 장인 刺史는 상도독부의 장사와 같은 중3품이고, 별가는 상도독부의 사마와 같은 중4품하이이며, 장사는 중5품상이었다(『新唐書』 권38, 志28, 地理; 『大唐六典』 권30, 三府都護州縣官吏 大都督府·上州조; 礪波護, 『唐代政治社會史研究』, 同朋舍 1987, 242쪽 唐代百官表).
- 49) 唐代的 縣은 규모와 지역에 따라 京縣, 畿縣, 上縣, 中縣, 中下縣, 下縣으로 나뉘었다. 율수현은 아마도 상현 이하의 어느 현에 해당될 것이다. 현에는 장관인 令을 비롯하여 丞, 主簿, 尉 등의 屬官이 있었는데, 縣令은 상현의 경우 중6품상이고 하현의 경우 중7품하에 속했지만, 縣尉는 상현만 중9품상이고 중현·중하현·하현의 경우 모두 중9품하직이었다(『舊唐書』 권40, 志20 地理; 『通典』 권181, 州郡11; 『大唐六典』 권30, 위의 조 礪波護 위의 책 같은 쪽).
- 50) 『三國史記』 권11, 문성왕 3년 추7월조.
- 51) 李基東, 「新羅 下代 賓貢及第者의 出現과 羅唐 文人의 交驩」, 289쪽 주37.

시는 정4품에 해당하므로, 최치원이 김장의 위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安史亂 이후 明經科에 一經으로 급제한 사람을 中縣尉에 임명하고 진사과 출신자는 畿縣尉로 삼으려는 논의가 제시되었음을 볼 때,⁵²⁾ 최치원의 관직은 솔직히 낮은 편이었다.⁵³⁾

상현은 현위가 2인으로 功·戶·倉의 직무와 兵·法·土의 임무를 각각 1인이 나누어 담당했지만,⁵⁴⁾ 中縣·中下縣·下縣은 1인의 현위가 호·법의 임무를 모두 관장했다.⁵⁵⁾ 현위직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면서 지방 사회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지라도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관직 진출을 지향했던 최치원에게 격무의 최말단 지방관직은 만족하기 어려운 위치였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보다 상위 관직으로의 진출을 유념하면서 시부 습업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결국 그는 또 다른 인재 등용방법인 制學에 관심을 가졌다. 다음의 사료를 참고하기로 하자.

(9) 지금은 잠깐 한 벼슬에서 물러나 三篇에 응시하려고 재차 나아가 닦기를 원했고, 또한 물러나 다스리기를 피하여 홀로 산림에 의지하면서 거듭 고서를 열람했다. 날마다 시를 지음은 虞訥의 비난과 책망을 피할 수 없고 해마다 賦를 지음은 陸機의 비웃음을 어찌 부끄럽게 여기겠는가?⁵⁶⁾

52) 晚唐의 春秋學者인 趙匡이 과거합격자와 縣尉의 지위에 관련하여 「舉人條例」라는 用人論을 지어 각 출신자의 지방관 임명을 서술했다(『通典』 권17, 「學選議」; 礪波護, 「唐代의 縣尉」, 앞의 책, 162~163쪽).

53) 唐 文官 進叙의 순서는 대체로 科舉登第者가 吏部의 採用試驗에 합격하여 한 지역의 지방관으로서 縣尉나 縣丞으로 나갔다가 中央官으로 들어오거나, 門蔭로서 역시 縣尉·縣丞으로 나갔다가 京官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바로 京官이 되는 3가지의 경우가 있었다(築山治三郎, 「唐代官僚の仕官と選授」, 앞의 책, 493쪽). 최치원은 관례를 따라 급제자로 縣尉에 나갔던 것이다. 다만 唐末의 관리 인선 방식이 왜곡되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관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관직에 임용되었다고 여겨진다.

54) 歐陽詹, 「同州韓城縣西尉廳壁記」, 『文苑英華』 권806 에 “縣亦有六曹 尉二人 一判功戶倉 其署曰洞廳 一判兵法土 其西曰西廳”이라고 했다

55) 礪波護, 앞의 책, 148~156쪽.

56) 崔致遠, 「初投獻太尉啓」, 『桂苑筆耕集』 권17, 앞의 책, 379쪽에 “今者乍離一尉 欲應三篇 更願進脩 且謀退縮 獨依林藪 再闕丘墳 課日攻詩 虞訥之詆訶無避 積年著賦 陸機之哂笑何慙”이라고 했다

최치원은 현위직을 사임하고 삼편에 응시하고자 산림에 머물면서 고서를 열람하고 날마다 시부 작성에 몰두했다. ‘삼편’은 명경시나 진사시에 합격하여 任官한 자를 대상으로 선별하는 宏詞인데,57) 그것은 兩漢 이래 조정의 特詔에 의하여 ‘賢良方正 直言極諫’의 인재를 뽑는 비정기적인 과거인 制科 考試의 하나였다.58) 황제가 임시로 명칭을 붙여 직접 주관하면서59) 尙書吏部에서 詩文 삼편을 시험보아 뛰어난 능력의 인물을 銓選했다. 따라서 고급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評사시를 통과하여야 했다.60) 최치원은 관직 진출의 희망을 안고 입당유학하여 빈공진사로 급제했고, 현위로 근무하면서도 시부 습작에 진력했다. 그러나 보다 상위의 관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박학평사의 응시를 모색하여, 마침내 877년 겨울에 현위를 맡은 지 1년 만에 사임하고 입산수학했다.61)

V. 高駢 휘하 巡官 활동

최치원은 수학을 중단하고 회남절도사 고변에게 투탁했다. 그것은 879년에 박학평사가 중단되고62) 과거 파행에 불만을 품은 士人들이 점차 번진의 幕僚로 부

-
- 57) 『新唐書』 권45, 志35, 選舉志下에 “凡試判登科謂之入等 甚拙者謂之藍縷 選未滿而詩文三篇謂之宏辭 試判三條謂之拔萃 中者卽授官”이라고 했다. 礪波護, 『唐の官制と官職』, 앞의 책, 226쪽.
- 58) 위의 책 권44, 志34, 選舉志上에 “所謂制學者 其來遠矣 自漢以來 天子常稱制詔道其所欲問而親策之 唐興 世崇儒學…其爲名目 隨其人主臨時所欲 而列爲定科者 如賢良方正 直言極諫 博通墳典達於教化 軍謀宏遠堪任將率 詳明政術可以理人之類 其名最著”라고 했다.
- 59) 金奎皓, 『唐代科擧制度考』, 『論文集』, 8집 2호(공주교대 1971), 310쪽.
- 60) 李基東, 『新羅 下代 賓貢及第者의 出現과 羅唐 文人의 交驩』, 앞의 책, 297~298쪽 건부 5년(878) 3월에 吏部尙書 鄭從謙과 吏部侍郎 崔沆이 宏詞로 인재를 뽑았고 이듬해 3월에도 이부시랑 최항과 崔潛이 評사를 치루었다(『舊唐書』 권19하, 本紀19下 僖宗조).
- 61) 徐有桀, 『校印桂苑筆耕集序』, 『桂苑筆耕集』, 앞의 책, 286쪽에서 “久之調溧水縣尉 任滿而罷 라고 하여, 최치원이 현위의 임기를 다했다고 했다. 당 관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었지만 樂山治三郎, 『唐代官僚の仕官と選擧』, 앞의 책, 504쪽), 최치원 스스로 ‘현위를 그만두었다고 했으므로 4년간 奉職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崔致遠, 『謝借宅狀』, 『桂苑筆耕集』 권17, 위의 책, 384쪽에 “三年就學非 [缺] 慕藹之心”이라고 했다. 이 글은 880년 仲夏 고변에게 투탁한 뒤 쓴 글이므로 3년 동안 공부했음을 역산하면 현위직 사임은 877년 쯤에 이루어졌다.
- 62) 松本明, 『唐の選擧制に關する諸問題—特に吏部科目選について』, 『鈴木俊先生古稀記念東洋史論叢』 (1975), 409쪽 唐代宏詞·拔萃兩科科第表, 李基東, 앞의 책, 298쪽 주 73 재인용.

임하는 경향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⁶³⁾ 出身入仕한 지 20~30년이나 된 관료도 절도사에게 투탁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選舉에 의거하여 관직 진출을 도모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더 이상 수학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10)-① 근래에 만리 밖 집에 인사하고 10년 동안 나라를 살폈음은 본래 榜의 끝에 登第되어 江淮의 한 縣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겨울에 말 단 현위를 그만두고 靑사에 응시하려 산에 거주하여 잠시 은퇴하기를 결심하면서 배움이 바다에 이르기를 기약하고 거둬 스스로 갈고 닦았다. 녹봉은 남음이 없고 글 읽을 양식은 구제되지 못했다. 문득 勃箒를 가지고 와서 李膺의 문을 쓸었는데, 어찌 太尉相公이 멀리서 칭찬과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임무와 녹봉을 내릴 것이라 생각했을 것인가? 자취는 鄭驛을 쫓고 몸은 陶窓에 머물어서 겨우 東郭의 가난함을 걱정했으나 부질없이 北宮의 용맹함을 길렀을 뿐이다. 지난 해 仲夏에 出師를 만나 갑자기 부름을 받았는데 채찍질 더함을 함부로하여 龍旆 따름을 허락받았다...또한 聖朝에서 벼슬하는 빛나는 子弟는 出身入仕하기를 20~30년이라도 오히려 누더기 도포를 걸고 蓮幕을 쫓지 않은 자가 많다. 하물며 아무와 같은 異域의 儒生에게랴⁶⁴⁾

(10)-② 아무는 감히 충성과 충정을 다하여 붓을 잡아 편지를 올려서 엄한 꾸중을 피하지 않고 번번이 평소의 생각을 말하고자 삼가 생업으로 지은 雜篇章 5축과 함께 陳情 七言長句詩 100 편을 올린다⁶⁵⁾

63) 변진이 僚佐나 管下 州縣官吏를 임명할 때 缺員과 후보자를 일일이 중앙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보신을 비롯한 몇몇 절도사들이 安史亂 이후 자의로 文武 長吏를 임명하면서(金奎皓, 「唐代官僚의 實態—選拔과 蓄財를 중심으로」, 『論文集』, 12 人文·社會科學篇 江原大學校, 1978, 50쪽), 이러한 추세는 일반화되었다

64) 崔致遠, 「長啓」, 『桂苑筆耕集』 권18, 앞의 책 386쪽에 “頃者萬里辭家 十年觀國 本望止於榜尾科第 江淮一縣令耳 前年冬 罷離末尉 望應宏詞 計決居山 暫爲隱退 學期至海 更自琢磨 俱緣祿俸無餘 書糧不濟 輒携勃箒 來掃膺門 豈料太尉相公 迥垂獎憐 便署職秩 跡趨鄭驛 身寓陶窓 免憂東郭之貧 但養北宮之勇 去年中夏 伏遇出師 忽賜招呼 猥加驅策 許隨龍旆...且見聖朝簪裾 烜赫子弟 出身入仕 二三十年 猶掛藍袍 未趨蓮幕者多矣 況如某異域之士乎”라고 했다

65) 崔致遠, 「初投獻太尉啓」, 『桂苑筆耕集』 권17, 위의 책, 379쪽에 “某固敢隳肝瀝膽 進牘抽毫 不避嚴誅 輒申素懇 謹錄所業雜篇章五軸 兼陳情七言長句詩一百篇”이라고 했다

최치원은 입산수학하면서 남은 녹봉이 없고 글 읽을 양식도 모자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고변에게 잡편장 5축과 진정 칠언장구시 100 편을 올려 경제적 곤궁함을 면하고자 했다.

당 전역을 휩쓴 반란의 여파도 입산 수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건부 원년(874)에 반란을 일으킨 王仙芝는 다음 해 冤句賊인 황소의 수천명과 합세하여 1년 만에 河南道는 물론 山南東道와 淮南道를 유린했다. 특히 876년 12월 황소의 廬州 함락은 江南西道에 속한 여러 주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여주는 長江의 이북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주를 거친 왕선지·황소 양군이 양자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온다면 강남서도의 북부 지역은 물론 강남동도도 침략을 면할 수 없었다. 율수현은 여주와 맞닿은 강남서도 최북단 선주의 동북방에 위치했으므로 언제든 왕선지·황소 양군의 침략을 받을 수 있었다. 제거에 의한 관직 진출이 좌절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최치원에게 반란군의 움직임은 더 이상 입산 수학할 수 없는 이유로 작용했다.

율수현은 선주의 선성현과 회남도의 중심인 양주의 사이에 있었다. 회남도의 治所인 양주는 鄭州로부터 杭州까지 이어지는 永通渠 유역에 자리했다. 영통거는 남북으로 淮水와 揚子江을 이었는데, 당 조정은 양자강과 회수 연안에 있는 주현의 물자를 초주나 양주에 모아 영통거를 통해서 東都까지 운반했다.⁶⁶⁾ 회남은 당시 당 조정의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했다.⁶⁷⁾

고변은 건부 6년(879) 10월에 檢校司徒 同平章事 揚州大都督府長史 淮南節度副大使知節度使 江淮鹽鐵轉運 江南行營招討等使로 東面兵馬都統에 임명되었고,⁶⁸⁾ 겨울에는 檢校太尉 同平章事로 제수되었다.⁶⁹⁾ 광명 원년(880) 3월에는 諸道行營兵馬

66) 陳正祥 編著, 「唐代之黃河與汴河」, 『中國歷史·文化地理圖冊』(原書房 1982), 43 쪽

67)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五冊 <隋·唐·五代十國時期>(中國地圖出版社, 1989), 地圖 54~56 쪽

68) 『舊唐書』 권19하, 本紀19下, 僖宗 乾符 6년 10월조 이 때 고변은 東面都統에 임명되었다 崔致遠, 「謝加太尉表」, 『桂苑筆耕集』 권2, 앞의 책, 294쪽에 “臣某言 今月某日 宣慰使供奉官嚴遵美至 奉宣聖旨 慰諭臣及將校等 並賜臣勅書手詔各一封 加臣檢校太尉 依前充淮南節度使兼東面都統者”라고 하여, 고변이 879년 겨울에 檢校太尉를 받았을 때 淮南節度使이면서 東面都統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건부 4년(877)부터 江淮鹽鐵轉運을 맡았는데, 이것은 회남을 포함하여 東南各道水路轉運을 담당하여야 했다(『中國歷代職官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92, 197 쪽).

69) 위의 책 권182, 列傳132, 高駢傳

都統에 올랐으며 諸道鹽鐵轉運使를 맡았다.70) 황소의 여주 침공 이후 그는 회남절도사로서 황소난을 진압하는 정부군의 사령관이자 국가 재정의 근간인 鹽鐵을 운송하는 책임자로 활동했다. 자연 회남도에 이웃한 선주에도 이미 고변의 영향력이 미쳤다.71)

최치원은 고운을 통해서 고변에게 투탁했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11)-① 아무는 가만히 同年인 顧雲 校書의 「獻相公長啓」 1首와 短歌 10篇을 보았다. …다만 樂國에서 행복하게 놀고 仁風을 얻어 보며 간절한 정성을 오랫동안 쌓아 歌詠을 펴기 위해서 문득 紀德絕句詩 30首를 바쳐 삼가 별첨과 같이 봉한다.72)

(11)-② 앞선 件의 官員은 동쪽의 대나무 잎새가 아름다움을 품고 남쪽의 계수나무가 꽃향기를 낸 것처럼 謝朓의 긴 옷자락을 끌고 衛靑의 軍幕에서 종사했다. …轉官을 요청하니 이에 章服을 내려서 觀察支使에 채우소서.73)

최치원은 고운이 고변에게 올린 「헌상공장계」 1수와 단가 10편을 본 뒤 기덕시 30수를 작성하여 고변에게 바쳤다. 당시 고운은 고변의 휘하에 종사하며 관찰판관의 하위인 支使로 轉職될 만큼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74) 당 조정의 실세로 부상하며 선주에 영향력을 미쳤던 고변은 관직 진출을 모색했던 최치원의 호감을 받을 수 있었다. 최치원은 879년 10월 이후부터 충성과 충정을 다짐한 편지와 잡편장 5축, 진정 칠언장구시 100편을 고변에게 올려 자신의 출사를 모색했다.75) 이후 고

70) 위의 책 권19하, 本紀19下, 僖宗조와 권182, 열전32, 高駢傳, 『新唐書』 권24, 列傳49下, 叛臣下, 高駢傳

71) 崔致遠, 「答江西王尚書書」, 『桂苑筆耕集』 권11, 앞의 책, 343쪽에 “遂差押衙馮綬 暫令安撫郡城” 이라고 하여, 선주에 고변의 관료인 押衙 馮綬가 파견되어 郡城을 安敦했다.

72) 崔致遠, 「獻詩啓」, 『桂苑筆耕集』 권17, 위의 책, 380~381쪽에 “某竊覽同年顧雲校書 獻相公長啓一首 短歌十篇…但以幸遊樂國 獲觀仁風 久貯懇誠 冀伸歌詠 輒獻紀德絕句詩三十首 謹封如別” 이라고 했다.

73) 崔致遠, 「請轉官從事狀」, 『桂苑筆耕集』 권6, 위의 책, 316쪽에 “前件官 東筠孕美 南桂抽芳 曳謝朓之長裾 從衛靑之軍幕…伏請轉官 仍賜章服 充觀察支使” 라고 했다.

74) 唐代 절도사는 관찰사를 겸하면서 判官, 支使, 推官, 巡官, 衙推 각 1인을 두었다(『新唐書』 권39하, 志39下, 百官下).

75) 고변이 문학적 인연 때문에 顧雲의 추천을 받아 東夷출신 최치원을 발탁했다고 하지만(今西龍 「

운에게 요청하여 기덕시 30수를 고변에게 올려서 880년 仲夏에 고변의 出師를 받았다.⁷⁶⁾

최치원은 회남절도사 휘하에서 감찰과 문한의 임무를 맡았다. 다만 직함의 명칭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리 불려졌다. 아래의 사료를 살펴기로 하자.

(12)-① 아무는 금월25 일에 특별히 署經을 내려 館驛巡官에 채운다는 公牒을 받았다. 은혜가 台階에서 내리니 빛이 旅舍에서 나타났다…신선이 돌아보아서 점점 광외의 대에 가까이했지만 驚蹇이 무엇을 베풀어서 鄭莊의 驛에 주인이 되겠는가?⁷⁷⁾

(12)-② 특별히 위로의 안부를 내리고 겸하여 奏薦을 허락하면서 스스로 狀本을 만들어 올리게 했다…무엇 때문인가하면 아무는 직분이 鄭驛을 함부로 탐내어서 이미 지극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이름이 조정에 도달하여 실제로 넘치는 소망을 이루었다.⁷⁸⁾

(12)-③ 어제 어여빠 여기심을 입어 특별히 轉職을 받았는데,…都統巡官은 반드시 인재를 가려서 임무를 칭찬받게 해야 한다. 밖으로는 四方의 기대를 채우고 안으로는 十乘의 위엄에 뒷받침하여야 한다. 만약 지금 아무가 티끌만큼이라도 恩知를 더럽히고 직책을 다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한다면 戎狄의 비웃음을 사고 史傳의 나무람을 얻게 될까 두렵다.⁷⁹⁾

新羅崔致遠傳,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371~375쪽), 최치원 자신이 고변 휘하로 투탁하려고 했다(李在云, 앞의 책, 28~29쪽).

76) 투탁 시기는 대체로 877년이라 이해되지만(金重烈, 앞의 논문, 29쪽; 金仁宗, 앞의 논문, 22쪽; 李在云, 앞의 책, 27쪽), 878년을 주장하기도 한다(許捲洙, 앞의 논문, 248쪽). 崔致遠 「初投獻太尉啓」, 『桂苑筆耕集』 권17, 앞의 책, 379쪽에, “伏惟司徒相公 獨抱神略 一匡聖朝 譽洽於良哉康哉 名標於可大可大”라고 하여 최치원이 고변에게 나아갈 때 司徒相公이라고 했다. 반면 崔致遠 「長啓」, 『桂苑筆耕集』 권18, 같은 책, 386쪽에는, “輒携勃筴 來掃階門 豈料太尉相公 迥垂獎憐 便署職秩 跡趨鄭驛 身寓陶窓…去年中夏 伏遇出師 忽賜招呼”라고 하여 고변이 太尉相公이라고 했다. 고변은 879년 10월에 司徒에 봉해졌고 그 해 겨울에 檢校太尉를 받았다. 따라서 최치원이 고변에게 나아간 것은 879년 10월 이후의 일이다. 다만 881년 7월 이후에 쓴 「長啓」에 ‘去年出師’라고 했으므로 고변이 출사를 명령한 것은 880년 仲夏 쯤이었다(張日圭, 『桂苑筆耕集』의 構成과 性格—崔致遠의 在唐 生涯와 관련하여—, 63~66쪽).

77) 崔致遠 「謝職狀」, 『桂苑筆耕集』 권17, 위의 책 383쪽에 “右某 今月二十五日 伏承公牒特賜署充館驛巡官者 恩降台階 光生旅舍…神仙見顧 稍親郭隗之臺 驚蹇何施 得主鄭莊之驛”이라고 했다

78) 崔致遠 「謝許奏薦狀」, 『桂苑筆耕集』 권17, 위의 책 384~385쪽에 “特賜慰問 兼許奏薦 令自修狀本來者…何者 某聯叨鄭驛 已謂極榮 名達堯階 實爲過望”이라고 했다

(12)-④ 어제 軍資庫가 館驛巡官 8월 料錢을 보내 도착했다 아무는 장차 변방에 미치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미 公牒을 받들었다. 갑자기 候館을 떠나 곧바로 귀국 길에 오르라고 지시받았다.⁸⁰⁾

(12)-⑤ 淮南에서 관직에 나아가 高侍中의 은혜를 입어서 筆硯을 모두 맡았다 軍書가 물려듬에 힘을 다해 담당하여 4년간 마음을 써서 1만 여수를 이루었다.⁸¹⁾

객사에 머물면서 고변에게 의탁하려던 최치원은 879년 겨울 어느 달 25일에 ‘鄭莊之驛’, 館驛巡官으로 발령하는 공첩을 받았다. 그 뒤 奏薦을 허락받아 880년 5월 이후부터 실제로 관역순관에 임명되어 884년 8월까지 역임했다.⁸²⁾ 그러나 고변이 879년 10월과 광명 원년(880) 3월에 각각 東面兵馬都統과 諸道行營兵馬都統을 맡으면서 881년 7월 이전에 도통순관에 임명되어⁸³⁾ 882년 정월에 고변이 王鐸에게 諸道行營兵馬都統職을 넘겨 줄 때까지 계속 담당했다.⁸⁴⁾ 882년 정월 이후에는 고변이 諸道鹽鐵轉運使를 韋昭度에게 넘기고⁸⁵⁾ 882년 5월 侍中을 받은 뒤⁸⁶⁾

79) 崔致遠, 「長啓」, 『桂苑筆耕集』 권18, 위의 책, 386-387쪽에 “昨蒙恩慈 特賜轉職…其如都統巡官 須選人材稱職 外塞四方之望 內資十乘之威 若今某塵玷恩知 尸素 [缺] 位 但恐買戎狄之笑 沽史傳之譏”라고 했다

80) 崔致遠, 「謝再送月料錢狀」, 『桂苑筆耕集』 권20, 위의 책, 401쪽에 “昨日軍資庫送到館驛巡官八月 料錢 伏緣某將命速方 已奉公牒 暫離候館 卽指歸程”이라고 했다

81) 崔致遠, 「桂苑筆耕序」, 『桂苑筆耕集』, 위의 책, 287-288쪽에 “從職淮南 蒙高侍中 專委筆硯 軍書 輻至 竭力抵當 四年用心 萬有餘首”라고 했다

82) 당시에 前浙西館驛巡官이었던 張咸은 山陽縣丞을 攝職했다(崔致遠, 「前浙西館驛巡官鄉貢三傳張咸 攝山陽縣丞」, 『桂苑筆耕集』 권13). 최치원은 현승보다 낮은 현위직을 역임했지만 관례에 따라 관역순관을 맡았다.

83) 乾符 年호가 廣明으로 바뀐 것은 880년 춘정월이고, 광명 年호는 881년 7월 丁巳에 中和로 바뀌었다. 최치원은 도통순관을 맡아 광명 2년 7월 8일에 황소에게 보내는 「檄黃巢書」를 썼고, 광명 원년을 중화 원년으로 개칭함을 하례하는 「賀改年號表」를 작성했다. 그의 도통순관 임용은 881년 7월 정사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도통순관은 고변이 도통에 임명되면서 불리해진 관직명이기에 관역순관이 보다 정확한 직명인 셈이다.

84) 『新唐書』 권9, 本紀9, 僖宗 中和 2년조 崔致遠, 「告報諸道徵會軍兵書」, 『桂苑筆耕集』 권1, 앞의 책, 340쪽에 “中和二年五月十二日…況都統王公 暗運智機”라고 했으므로, 왕탁은 882년 5월 12일 이후에 諸道行營都統에 임명되었다.

85) 위의 책 권224, 列傳149下, 叛臣下, 高駢傳, 崔致遠, 「請巡幸江淮表」, 『桂苑筆耕集』 권2: 「請巡幸第二表」, 『桂苑筆耕集』 권2. 한편 「鹽鐵李都相公」 二首 『桂苑筆耕集』 권8 에는 李都에게 鹽鐵使를 넘겼다고 했다.

여전히 淮南八州를 장악하면서⁸⁷⁾ 다시 이전의 관역순관직을 수행했다. 최치원은 비록 명칭의 변경이 있었지만 879년 10월 이후부터 대략 4년 동안 고변 휘하에서 순관직을 맡았다.

순관은 절도사의 속관 가운데 말단직이었는데, 특히 관역순관은 4인이었다.⁸⁸⁾ 절도사는辟召를 통해서 判官, 推官, 掌書記, 巡官 등을 임명했다. 당말에 절도사는 관내의 정치·군사·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유능한 문사를 초빙했고, 벽소를 입고자 하는 자는 유력한 절도사에게 투탁하기를 희망했다. 벽소로 임용된 순관은 절도사 휘하의 부정비위를 감찰하고 전적과 문서를 검열하는 임무를 담당했다.⁸⁹⁾ 자연 순관은 절도사와 밀접한 관계에 가졌다.

최치원은 고운을 통해서 고변의 벽소를 입으려 노력했고 마침내 벽소를 받아 현위보다 높은 순관에 임용되었다.⁹⁰⁾ 그는 변진의 규율을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차 고변의 관심과 총애를 받을 수 있었다. 전적과 문서를 검열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아 4년 동안 무려 1만 여 수의 軍書를 대작했다. 그가 절도사 휘하의 문한을 담당했던 것은 투탁 과정에서 고변에게 잡편장과 함께 진정과 기덕의 뜻을 담은 시를 헌상하여 자신의 文才를 은근히 부각했기 때문이다. 문한을 맡았던 최치원은 황소에게 격문을 보내 힐책함으로써 더욱 고변은 관심을 받았고 文名을 얻었다.

회남은 신라 사신이 입조하는 길목이었다. 헌강왕 10년(884)에 金仁圭는 新羅國入淮南使의 자격으로 崔栖遠과 함께 회남에 들어왔고,⁹¹⁾ 신라 探候使인 朴仁範은 다음 해 3월 이전에 서촉에 머물던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서 회남에 도착했다. 최

86) 『資治通鑑』 권255, 唐紀71, 僖宗 中和2년5 월조

87) 885년 御駕의 還京 이후에도 고변은 淮南八州를 관할했다(『舊唐書』 권19 하 本紀19 下, 光啓 元年 3月조; 권38, 志18, 地理1).

88) 唐代 절도사 휘하에는 副大使知節度使를 비롯하여 行軍司馬, 副使, 判官, 支使, 掌書記, 推官, 巡官, 衙推 각 1인이 있었고 이외에 同節度副使 10인, 館驛巡官 4인, 府院法直官 要籍 逐要親事 각 1인, 隨軍 4인이 있었다(『新唐書』 권39 하 志39 下, 百官 下).

89) 築山治三郎, 앞의 책, 213~215쪽. 절도사의 屬僚로 활동했던 이들은 점차 중앙의 정규관료가 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비위 감찰과 문서 검열은 監察御史, 侍御史, 殿中侍御史 등 御史臺 관원의 관료 감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 최치원은 순관으로 재직하면서도 이 점을 염두했을 것이다.

90) 절도사 휘하의 巡官은 州의 諸曹參軍事的 官位에 해당한다. 제조참군사는 上·中·下州에 따라 위계가 다르지만 대개 從7品下~從8品下에 속했다(礪波護, 앞의 책, 239~243 쪽).

91) 崔致遠, 「謝賜弟栖遠錢狀」, 「上太尉別紙」, 「祭嶠山神文」, 『桂苑筆耕集』 권20.

치원은 박인범에게 귀국하지 말고 황제를 반드시 알현하라는 고변의 뜻을 대작하여 전했다.⁹²⁾ 당 황실을 호위하는 회남 번진에서 문관을 담당했던 최치원의 활약상은 사신을 통해서 신라에 알려질 수 있었다. 최치원은 자신의 활동이 귀국 후의 관직 진출을 보장하는 토대로 작용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17년 동안 당에 머물렀던 최치원은 관직 진출을 지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

VI. 맺는 말

최치원은 입당유학한 뒤 귀국하여 당에서 배운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고 했다. 귀국 후의 활동은 재당시절의 수학 과정이나 활동상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글은 재당 활동의 내용과 그 성격을 추구했다.

최치원은 최견일의 아들인 현준의 동생이며 崔仁澆·崔栖遠과 4촌 내지 6촌의 형제사이였다. 이들은 대개 숙위학생이나 승려로서 활동하면서 유교와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당의 권위에 민감했다. 자연 유학과 불법을 존중하면서 숙위 학생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경문왕계 왕실과 친밀할 수 있었다. 최치원의 입당유학은 왕실과 관계했던 집안 분위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는 일찍부터 입당유학으로 관직에 진출하려는 성향을 가졌다.

868년에 최치원은 숙위학생으로 입당하여 東都에 자리한 국자감의 太學에서 습업했다. 874년 7월 이전에 그는 국자감 학생으로서 生徒試의 進士試에 登科했다. 이 때 이름은 진사급제자의 榜 말미에 붙여졌는데, 그것은 唐人이 아닌 이방인으로 급제함으로써 賓貢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시험제도인 賓貢科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최치원은 진사의 대우를 받는 賓貢進士에 급제했다.

신라는 국학을 설치하여 유교경전을 가르쳤다. 최치원은 입당 이전에 이미 경사에 조예가 깊었다. 다만 진사시는 詩賦와 策文을 시험했기에 이를 습업하는데 진력했다. 시부의 습작은 급제 후 동도에 잠시 머물렀던 때나 최하말단의 지방관직

92) 崔致遠, 「新羅探候使朴仁範員外」, 『桂苑筆耕集』 권0.

인 전주 율수현위로 나아가서도 계속되었다. 당시 고급관료는 시문을 시험하는 吏部銓選을 통과해야 했다. 최치원은 격무의 말단 관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부 습작에 힘을 기울였다.

877년 겨울에 최치원은 1년만에 현위직을 사임하고 制學의 하나인 博學宏詞에 응시하려고 입산 수학했다. 그러나 평사가 중단된 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황소군의 약탈 위협을 받게 되자 수학을 중단했다. 당시 회남절도사 고변은 당 조정의 경제 기반을 관리하면서 황소군 진압의 중책을 맡아 점차 실세로 성장하며 전주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최치원은 고변 휘하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던 과거 동년 顧雲을 통해서 자신의 出師를 고대했다. 879년 10월 이후에 마침내 고변의 辟召를 입어 880년 3월부터 약 4년 동안 감찰과 문한의 임무를 맡았다

최치원은 고변 휘하에서 1만 여수의 軍書를 代作하면서 「檄黃巢書」를 작성하여 文名을 날렸다. 당시 회남은 신라 정부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당 황실을 호위하는 중요 번진에서의 활약상은 회남을 거쳤던 사신을 통해 신라에 알려졌다. 10년의 유학 기간을 넘기면서 당에 머물렀던 최치원은 자신의 활약상이 귀국 후의 관직 진출을 보장하는 토대로 작용하리라고 자부하였고, 마침내 884년 가을에 錦衣還鄉했다.

최치원은 입당유학하여 경사를 익히고 특히 시부와 책문을 연마하는데 충실했다. 시부와 책문의 습작과 연마는 상위 관직으로의 진출을 염두했기 때문이다. 그는 재당시절에 학문적 수련보다 관직 진출의 지향과 그것의 실현을 보다 중시했다. 귀국 후에 『桂苑筆耕集』을 찬술하여 헌강왕에게 진상한 것은 고변 휘하에서 문한을 담당했던 자신의 활동상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결국 최치원의 재당 활동은 아버지 최견일의 바람대로 당의 권위와 학문을 내세워 왕실의 측근 관료로서 활동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때문에 그의 학문적 수련과 그 내용은 왕실을 중심한 사상의 모색으로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이 글은 재당시절에 여러 사상을 수용했던 과정을 주목하지 못했다. 교유했던 당의 관료와 문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唐 文藝史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